



바야흐로 GLP-1 시대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 심혈관 3상 긍정적 결과 발표.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의 심혈관 위험 감소를 보여준 첫 데이터로 비만치료제 GLP-1 약물에 대한 수요를 더욱 자극 시킬 것으로 전망. 비만은 내년초, 당뇨치료제로는 이미 승인 받은 릴리의 마운자로 출시 1년만에 분기 실적 \$1bn 돌파로 릴리의 실적을 이끌었음. 바야흐로 GLP-1 시대.

◎ GLP-1 실적은 기대치 이상

- >> 전일(8일) 릴리는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당뇨 치료제로 알려진 마운자로가 출시 1년만에 분기 실적 \$1bn 달성(2Q23 \$979.7mn vs 2Q22 \$16mn).
- >> 최근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 당뇨 치료제로 먼저 출시한 마운자로 역시 매출 증가한 것으로 보임. 마운자로 비만 적응증 내년 출시 예정.

◎ 당뇨/비만의 세마글루타이드, 심혈관 게임 체인저 데이터 발표

- >> 노보 노디스크는 GLP-1 작용제인 당뇨/비만 치료제 Semaglutide의 심혈관 질환 3상(SELECT) 결과를 발표, 심혈관 질환 부작용을 20% 감소시켰음.
- >> 당뇨병 이력이 없는 BMI $\geq$ 27kg/m² 45세 이상의 성인 17,604명 참여, 표준 치료 외에도 주요 심혈관 부작용(MACE) 예방하기 위해 세마글루타이드 2.4mg 또는 위약 투여. 체중 감량을 위해 위고비를 치료 받은 사람들이 최대 5년 동안 위약 대비 MACE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주 평가지표 달성.
- >> 노보 노디스크는 올해말 세부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며, 적응증 확장을 위한 규제 승인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언급.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의 심혈관 위험 감소를 보여준 첫 데이터로 게임 체인저 데이터로 평가.
- >> GLP-1 약물이 당뇨, 비만 치료제 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치료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짐.

◎ 이번 데이터로 GLP-1 비만 치료제 수요 더욱 자극 할 것.

- >> 비만치료제가 단순 미용 목적 이외에도 비만으로 파생되는 많은 질병들에 대한 위험이 줄어 들 수 있다는 점을 시사. 이번 데이터로 인해 GLP-1 비만 치료제에 대해 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 공급 부족하나, 릴리, 노보 등 생산 시설 확대 중.
- >> GLP-1 작용제는 일1회에서 주1회로 주기가 연장되는 트렌드를 보유한 만큼 제형 편의성을 갖추려는 빅파마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펩트론은 1주1회 투여의 위고비, 마운자로를 월1회 또는 2회 제형 변경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탑티어 글로벌 제약사로추정) 기술이전 전 단계인 Term sheet 을 수령한 바 있음. 인벤티지랩(국내 대형사와 기술이전 논의), 지투지바이오(글로벌 기술이전 논의) 또한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 보유.

¶ MACEs는 major adverse cardiovascular events로 주요 심혈관계 제 증상을 말하며 치명적이지 않은 심근경색, 치명적이지 않은 뇌졸중 또는 심인성 사망 등을 포괄하는 개념.

¶ SELECT 임상 주요 목적은 심혈관 사망, 비치명적 심근경색 또는 비치명적 뇌졸중으로 구성된 3점 MACE 발생률 감소와 관련하여 위약 대비 세마글루타이드 2.4mg의 우수성 입증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8월 8일 현재 상기 언급된 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